

장석조네 사람들 (김소진)

"이것이 바로 그 밀가루여. 사람들이 너도나도 애타게 기다리던 그 밀가루지. 내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텅텅 비었더라고."

고 씨가 상호에게 사정을 털어놓는 도입. 취로 사업의 대가인 밀가루가 실제로는 배급되지 않고 창고가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.

42번 ① 근거('애타게 기다리'는 소외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). 동시에 42번 정답 ②의 함정 자리 — 창고가 빈 것을 확인하고 '한달음'에 달려온 것은 매수당한 뒤의 행동이지 저항이 아니다.

"장석조 씨가 한 사람 앞에 밀가루 두 포대하고 ③ 종이돈 예닐곱 장씩 얹어 주면서 빠져 달라고 해서 그만 고것에 눈이 어두워 내가 덩씩 끌어 안고 한달음에 집까지 달려오긴 했네만..."

③ 종이돈 = 항의에서 빠져 달라는 조건으로 건넨 매수 자금. 고 씨는 받아 들고 왔으나 죄책감에 드러누워 있다.

소재의 기능 — ③는 장석조 측이 '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도'로 건넨 물건이며, 그로 인해 상호와 고 씨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.

41번 정답 ③의 앞 절 근거. ④가 함정 — ③에는 요구 관철 의도가 있지만 ⑤(찜빵)에는 없으므로 '모두'가 성립하지 않는다.

"① 그런데 거진 만 원 돈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데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인가?" // "상호 아우님, 지발 우리 애아범을 모른 체해 주시구려. 이번 한 번만. ① 그러면 그 은혜가 정말 뺏속에 사무칠 거구먼."

① — 다친 발목, 병든 아내, 언어먹은 개떡이 유일한 곡기라는 처지를 앞세운 뒤 던지는 설의적 반문. 자신의 선택이 어쩔 수 없었음을 항변한다.

① — 고 씨의 아내가 매달려 통사정하는 말. '뺏속에 사무치다'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간절함의 크기를 드러낸다.

40번 ①·② 근거. 사투리 구어체가 인물의 생활 감각을 그대로 실어 나르는 점도 함께 볼 것.

광주리를 덮은 천을 걷어 내자 막걸리로 발효를 시켰는지 구수한 술내가 확 풍기는 ⑥ 찜빵이 올망졸망 머리들을 내밀었다. ... "오냐, 잘 해 왔다. 이 더운데 물술 다루느라고 고생께나 했겠다."

⑥ 찜빵 = 해런 엄마가 더운 날 손수 찌서 이웃들과 나누는 음식. 대가나 조건이 없다.

③(갈등을 부르는 돈)과 ⑥(공동체를 잇는 음식)을 나란히 놓아 대비시키는 소재 배치.

41번 정답 ③의 뒤 절 근거. ⑥는 같은 집단 안에서 나눠 먹은 것이므로 ②의 '집단 간 수평적 질서 형성'과는 층위가 다르다.

"⑥ 증말이당가? 증말로 시장이 내 앞에서 와서 이러코롬 사과를 허는 게 증말이란가?" ... "⑥ 시장님, 이 촌한 것한테 일부러 이렇게 발걸음을 허셔서 애로 사향을 들어주시다니 정말로 명관이십니다."

지붕에서 농성 중인 고영만 앞에 '시장'이 나타난다. ⑥은 같은 질문을 거듭하며 눈앞의 상황을 믿지 못하는 마음, ⑥은 상대를 '명관'이라 칭송하며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드러낸다.

회상이나 내적 독백에 기대지 않고 주고받는 말로만 장면을 굴리는 서술 — 현장감이 여기서 나온다.

40번 ③·④ 근거이자 39번 정답 ①의 핵심 근거. 39번 ④ 함정: 서술자는 이야기 '외부'에 있다(1인칭 서술자가 아님).

"⑥ 예, 이 높은 데서 시장님을 내려다보면서 말씀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……." / 밑에서 대 준 사다리를 타고 땅에 내려선 고영만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득의만만한 미소를 지으려 했다.

⑥은 말끝을 흐리지만, 곧바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다. 말의 생략은 망설임이 아니라 내려가겠다는 의사 표시다.

40번 정답 ⑤의 판별 지점. 말줄임표를 보고 자동으로 '망설임'을 떠올리면 걸린다. 바로 다음 문장의 행동을 반드시 확인할 것.

그러나 그 순간 달려든 경찰들이 그를 넘어뜨리고는 군홧발과 곤봉으로 간단히 곤죽을 만들었다. / "어이, 백 씨 빨리 그 양복 벗어 버리고 ..."

...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가운데서도 고영만 씨는 그 모습을 붙잡아 두려고 두 눈을 부릅떴으나 허사였다.

반전 — '시장'은 청소부 백 씨가 양복을 입고 연기한 가짜였다.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던 약속은 농성을 끝내기 위한 연출이었다.

인물의 각성이나 설명 없이 사건과 대사만으로 기만을 폭로하는 결말 처리. 아이러니가 그대로 노출된다.

42번 ④·⑤ 근거. 권력 계층의 기만적 행태와, 저항 시도가 좌절되는 시대상이 이 장면에 압축된다. '허사'라는 마지막 서술까지 근거로 쓰인다.

작품 정리

갈래 현대소설(연작 소설, 세태소설)

성격 사실적, 비판적, 해학적

작가 김소진

시점/화자 전지적 작가 시점(이야기 외부 서술자)

주제 1970년대 도시 변두리 소외 계층의 궁핍한 삶과, 권력의 기만에 좌절되는 저항

특징

- 회상이나 내적 독백에 기대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으로 서사를 현장감 있게 전개함 [39번]
- 인물마다 다른 방언과 구어체를 살려 생활의 질감을 드러냄
- ㉠ 종이돈과 ㉡ 찌뽕을 대비시켜 매수와 나눔이라는 두 관계 방식을 보여 줌 [41번]
- 가짜 시장이라는 반전으로 권력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결말
- 장석조네 셋집을 무대로 여러 인물의 삽화가 이어지는 연작 구조

등장인물

- 고영만: 다친 발목 탓에 벌이가 끊긴 주민. 매수당했다가 죄책감에 시달리고, 끝내 지붕 농성에 나선다
- 상호: 매수 사실을 눈치채고 고 씨를 찾아가 돈을 돌려주고 함께 내려가자고 설득하는 인물
- 고 씨의 아내: 병중에 있으며 상호에게 매달려 남편을 모른 체해 달라고 통사정한다
- 혜련 엄마: 길 노인네 머느리. 손수 찌 뽕을 광주리째 이고 와 이웃과 나눈다
- 장석조 · 곽 서기: 사태 무마를 위해 주민을 매수한 측
- 가짜 시장(백 씨): 청소부이나 양복을 입고 시장 행세를 하며 고영만을 속인다
- 오 경장: 가짜 시장 연출을 지휘하고 진압을 지시하는 인물

구성

- 발단(앞부분 줄거리): 밀가루가 배급되지 않자 주민들이 항의하고, 장석조와 곽 서기가 주민 셋을 매수함
- 전개: 상호가 고 씨를 찾아가 매수 사실을 따지고, 고 씨 부부가 사정함
- 삽입 장면: 혜련 엄마가 찌뽕을 가져와 이웃들과 나눔
- 위기·절정(중략 후): 지붕에서 농성하는 고영만 앞에 '시장'이 나타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약속
- 결말: 내려온 고영만이 경찰에게 제압당하고, 시장이 청소부의 연기였음이 드러남

전체 줄거리

대도시 변두리 동네 주민들은 취로 사업의 대가인 밀가루가 배급되지 않자 관청에 항의한다. 장석조와 곽 서기는 사태를 무마하려 주민 셋을 매수하고, 고영만도 밀가루 두 포대와 종이돈을 받는다. 이를 눈치챈 상호가 찾아와 따지자 고 씨는 다친 발목과 병든 아내를 들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, 아내는 상호에게 통사정한다. 상호가 돌아간 뒤 혜련 엄마가 찌뽕을 이고 와 이웃들과 나눈다. 이후 고영만은 지붕에 올라 농성하고, '시장'이라 자처하는 인물이 나타나 요구를 모두 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. 그 말을 믿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고영만은 곧바로 경찰에게 제압당하고, 시장 행세를 하던 사내가 양복을 벗고 청소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흐릿한 의식 속에서 지켜볼 뿐이다.